



코리아프린팅네트워크, 인쇄원가절감 세미나 개최 현 시장가 대비 저렴한 인쇄단가 제시 실시간 견적 시스템 활용한 원가관리 소개

코리아프린팅네트워크(대표 홍수종)가 지난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충무로 호텔PJ 4층 헤스티아홀에서 인쇄 기획사 및 인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쇄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학술정보 임옥빈 팀장과 박유정 부장의 프린트N 및 편집솔루션 소개, 한솔제지 황대연 과장의 친환경종이 소개, 한국HP 윤선영 부장과 한국학술정보 김대호 팀장의 디지털인쇄의 트렌드 및 솔루션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코리아프린팅네트워크는 CTP판재, CTP판 출력, 인쇄 및 후가공, 인쇄용지, 온라인 솔루션 등 관련 분야의 5개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신규법인으로, 종합인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론칭한 브랜드 프린트N은 오프셋 인쇄 자동견적 프로그램을 탑재한 웹 기반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옵션을 반영한 인쇄견적을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셋 인쇄견적은 산출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그 계산과정 또한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게다가 매번 별도의 문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프린트N은 이런 단점을 개선해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원하는 인쇄 사양에 대한 견적조회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합계금액뿐만 아니라 요소별 금액까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견적을 기반으로 CTP판 출력에서부터 인쇄, 제책 및 배송까지 인쇄의 전 공정을 한 번의 주문서 입력으로 이용 가능하며, 각 공정단계에 해당하는 상세한 옵션사항도 선택 가능하다. 임옥빈 한국학술정보 팀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각 분야별 전문기업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인쇄 노하우를 활용하여 원가절감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기업들 간 협업을 바탕으로 현 시장가 대비 약 30%가 저렴한 인쇄단가로 제작 가능하다는 점이 코리아프린팅네트워크의 경쟁력이다”고 밝혔다.

다양한 옵션설정 가능한 인쇄견적 프로그램

프린트N은 오프셋 온라인 발주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주문옵션을 설정하고, 실시간 견적이 가능하며, 주문내역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TP판 출력, CTP판 출력+오프셋 인쇄, CTP판 출력+오프셋 인쇄+후가공 등 3가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임옥빈 팀장은 “인쇄견적을 받아 보면, 인쇄사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인쇄사라도 뽑는 사람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도 많다. 이는 견적을 내는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 인쇄 견적을 내기 때문인데, 특히 인쇄부수, 판형, 컬러대수, 종이 등 다양한 가변요소가 어우러진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가격 또한 들쭉날쭉하게 된다. 이에 기획사에서는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며 “프린트N에 탑재된 인쇄견적 솔루션은 지난 10년간 디지털인쇄의 워크플로 노하우와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보유한 한국학술정보에서 개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량 유통으로 가격하락 유도

코리아프린팅네트워크는 CTP판재 공급사, CTP 출력, 종이유통, 인쇄, 후가공, 솔루션 등 각각의 전문업체들이 모여 대량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큰 폭의 가격하락이 가능하다.

특히 CTP 출력비용이 낮은 것은 CTP 출력업체나 인쇄사보다 UV CTP 판재를 1종만 구비해 놓고 대량 구입하기 때문이다. 종이 역시 백상지, 뉴플러스지 같은 기본 용지는 약 30% 할인해 공급한다.

임옥빈 팀장은 “이제 판재가격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반면 인건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적인 공정 개선과 프린트N을 통해 대량 주문을 확보함으로써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솔제지, 친환경 재생용지 추천

프린트N 견적프로그램 중 종이가격 산출은 한솔제지와 아트원제지의 종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한솔제지가 추천

하는 종이는 친환경 재생용지다.

해의 친환경용지 사용사례를 보면 미국은 10%재생지를 기준으로 지난 2010년 전체의 35%를, 일본은 27%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정부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량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 국내 인쇄용지류 판매량 중 재생용지 판매량은 8% 미만에 불과하다.

황대연 과장은 “A4 300페이지의 책 1천권을 만들려면 1톤의 종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30년생 소나무 15그루가 필요하다. 국내 사용되는 인쇄용지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지구 온도는 높아져가고 있다”며 “해결방안은 재생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재생지를 사용하면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토리 명함솔루션

복토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 디지털인쇄시스템과 제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 150명, 중국에 150명 등 총 3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맞춤형 디지털인쇄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실시간 웹 명함편집기를 도입한 복토리 명함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복토리 명함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획사 별로 독립된 홈페이지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실시간 웹 편집기를 무료로 제공해 기획사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명함솔루션은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 최대 600명까지 한 번의 클릭으로 명함을 주문할 수 있다. 각 명함은 실시간 웹명함 편집기를 이용해 이미지 및 QR코드 편집 등을 할 수 있다.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최신 명함솔루션 기술을 채택했다.☞

» 코리아프린팅네트워크, 인쇄원가절감 세미나 발표자



프린트엔
홍수중 사장



한국학술정보
임옥빈 팀장



한국학술정보 디자인편집부
박young정 부장



한솔제지 마케팅팀
황대연 과장



한국HP
윤선영 부장



한국학술정보 기획실
김대호 팀장